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오신 뜻을 되새기면서 그 법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날이다.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에 집착하여 분별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큰 빛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도 캄캄한 세상에서 타치는대로 살았을 것이다.

불기 2539년을 맞아 봉축위원회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 불자들의 불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미치도록 하려는 두가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를 살리는 의미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는 결국 그 자체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며, 그야말로 불교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그러기 위하여는 수행자들 스스로가 대중의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숭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은 반복되지만 시대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포교는 그만큼 진취적인 성격을 강화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대중의 목마름을 적절할 수 있다. 대중이 갈구하는 깨끗한 환경과 생태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과 문화, 외롭고 어려운 노인층 등은 불교계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인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있는 일이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일이나, 우리나라 사람과 남의 나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불자의 도에 어긋나는

사설

생활불교 자리매김 계기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사는 생활불교의 성격을 강화하고 대중 속에 불심을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은 집착과 성냄과 탐욕에 물든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참회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불자이고 싶어하나 아직도 깨달음이 철저하지 못한 많은 대중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가르침을 질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불교의 뜻은 기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정기 쉬운 삼투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은 깨침의 법어를 얻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 존재의 허물을 벗고 삶의 덧없음을 바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큰 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가 우리나라를 위한 종교가 됨으로써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우리 불자들이 나라를 위한 진실한 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도움없이 완전한 자유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행사를 온 국민과 더불어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의 행사는 이념의 일과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는 대중포교의 중요성과 생활불교의 자리매김을 일년 내내 연속되도록 함으로써 부처님이 대중의 속살 속에 계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범 하 스님



이번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불교의 대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또한 개혁을 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개혁종단이 첫 출범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의 문명을 선도하는 변화된 불교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봉축 행사는 전통 불자들이 합심협력하여

의례·형식 지양...국민행사로 보살행 실천 주관점두고 진행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종단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관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청정한 수행과 승종 진작을 통한 대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여 이 사회를 향도하는 승가 위상을 강화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나와 이웃, 사회, 민족, 세계, 자연과 하나되

는 보살행을 실천하는데 주관점을 둘 것이다.

또한 온겨례의 비유를 담아 민족이 하나되는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각계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어 통사섭하는 요익중생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치워내야 할 것이다.

아무췌록 무명에 싸인 중생들의 삶을 깨달음의 길로 제도하여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받들어 나가는데 원력을 심고, 보살행으로써 참된 나를 찾아 가는 '부처님 오신날'이 될 수 있도록 정진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

(조계종 총무부장)

이준 교수



분단 50년에 맞는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다른 해에 비해 의미가 깊은 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초 불교텔레비전방송의 탄생으로 봉축의 열기를 더할 수 있기에

바란다. 사회위주로 지역민을 위한 대 사회 자비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져야 하겠다. 특히 금년에는 불교계가 선언한 통일 원년으로서 북한과 해외포교들을 위한 마음의 탄생을 이루는 봉축의 열기를 더할 수 있기를

교계화합통해 통일원년 발원 불교 연극·음악회등 확대해야

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 오신 날이 민족적 명절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봉축행사는 지나치게 불교인 위주로 진행되었다. 일반인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민족명절인 사월초파일을 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

스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겠다. 교계 신문, 방송마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추진해야 한다. 일반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다.

또한 불교적 소재를 가진 연극, 영화, 음악회가 지역마다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봉축위원회는 각종 정보를 모아 널리 알리고 불교계의 화합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금년 봉축 제등행렬은 각 종단이 여법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건국대 공평대학)

시론

생명 애타가는 사이비 종교

미술적 구원 빌미로 현혹...사회불안도 원인

몇년전 종말론과 휴거로 떠들썩하고 사이비 종교 전문가가 삼태당하여 충격을 주더니 이번에는 실종된 교인들이 사이비 교단에 의해 살해 암매장된 것이 사실로 판명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종교나 이단종교가 2백여개에 달한다고 하니 한국인은 종교적 심성을 가진 국민이라고 할 만하다.

종교적 심성은 인간정신의 가장 원초적 본능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불완전하고 무력하며 고통스러운 존재이고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신앙은 그 속성에 있어서 유아적 상태에 머물고자 한다. 갖 태어난 아기가 거의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게 된다. 완벽한 충족과 안락이 있었던 어머니의 뱃속처럼 모든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는 절대적 안식처를 무의식적으로 동경하는 것은 자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사이비 종교가 성행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 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 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 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 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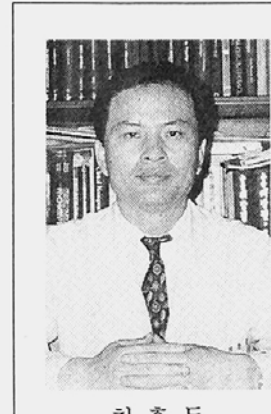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 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 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 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 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 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최훈동

(백산 신경정신과 원장)

현대만평



한마음으로...

박구원

부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주요 봉축행사 계획

내용	행사명	장소	일시
법요식	법요식	조계사 대웅전	5/7 10시
	봉축기원 대법회	여의도	4/29 18~19시
	제등행렬	여의도	4/29 19:30분
경축행	시청안 경회의 탑 점화식	시청안 광장	4/27 19:30분
	일각사지 탑돌이	탑골공원	5/3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동대 중강당	5/14 14시
행사	청소년 음악회	파리공원	5/13 19시
	어린이 백일장	목동청소년회관	5/14 10시

내용	행사명	장소	일시
경축행	서울 인형제(국제인형극제)	목동청소년회관	5/25~26 14시~16시
	지하철역 봉축동 발하기	지하철 각역	미정
	불교 응원 대회	조계사 대웅전	4/30 14시
행사	봉축 꽃놀이	미정	미정
	아동극 공연	목동청소년회관	4/21~5/7(일 3회)
	시 낭송회	조계사문화회관	4/22 17시
행사	불교예술제(내셔널아트페스티벌)	프레스센터	4/25 14시
	불교예술제(서울국제)	송파역 대강당	미정
	부처님 오신 날 학술 세미나	동국대학교	미정

내용	행사명	장소	일시
경축행	만들 만화 공모대회	MBC 문화체육관	4/2 15시
	연꽃 노래 잔치	동대 중강당	예선 4/2 13시 본선 4/30 13시
자비행	일선장령 위문	전후방부대	4/15~5/20(주간)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급	청소년회관	4/29 18~19시
	장애인 자선콘서트	조계사	4/22 16시
손길	노인재조사 위문 잔치	미정	미정
	외국인 노동자 법회	조계사	5/5
	불우이웃 돕기	미정	4/15~5/20(주간)

불교지성순례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출발: 5월 13일(단1회)
·동참금: 140만원
·일정: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키타비)-타키타비-페사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 협찬: 대한항공

스리랑카 6일

·출발: 3월 24일, 4월 21일
·동참금: 118만원

인도네시아 5일

·출발: 4월 16일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출발: 4월 21일
·동참금: 65만원

국불교유적지 13일

·출발: 5월 30일
·동참금: 195만원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송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출발: 6월 3일
·동참금: 188만원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단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네팔 10일

·출발: 4월 8일
·동참금: 230만원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제탕-장제-시가제-라사-카트만두-서울

도·네팔·태국 10일

·출발: 4월 21일
·동참금: 150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카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암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서울

▶ 여행조건 ▶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 최소 출발인원: 10인 ▶ 전문 가이드 동행 ▶ 여행자 보험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